



◇ 올 전체를 감싸는 신광과 머리부분의 두려이 함께 표현된 아이 타심존도(일본 横津미술관소장) (부분).

◇ 동근 구슬로 만들어진 염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거나 수를 세는 법으로 쓰인다.

◇ 사찰의 지붕 합각(合角) 벽의 동근 원 속에 작은 원 3개가 삼각형, 역삼각형 또는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 모양을 이루며 그려진 문양을 볼 수 있다. 이를 원이삼점 또는 이자삼점(伊字三點), 삼보(三寶)라 부른다. 3개의 원은 방어의 '이' 자가 세점의 역삼각형인 데서 비롯됐다. 방어의 '이'는 자재천왕의 눈이 생긴 모양을 본뜬 것이라 하여 자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남본열반경(南本涅槃經)> 권2 '대환품(大換品)'에서는 이 원이삼점을 통해 '열반의 내용인 법신 반야 해탈의 세가지 덕목이 서로 다르지 않게 상극(相卍)하고 있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원이삼점의 점들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앞과 뒤를 따로 두지 않는 전체적인 용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우리는 불(佛) 법(法) 승(僧) 삼보에 비겨 삼보의 상징으로도 보는 것이다.

◇ 화순 운주사 원형다층석탑(보물 제798호).

“진리세계 둥글기가 허공같네”

원동태허(圓同太虛) 무후무여(無欠無餘) 중국 선종의 제3조 승찬(僧旻)스님은 <신심명>에서 “지극한 도는 함으로圓滿하고 장애가 없어서 둥글기가 큰 허공과도 같다”고 했다. 남용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절대적인 무한의 진리가 원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를 성철(性徹)스님은 “지극한 도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보낼 수 없고 덜어낼 수도 없어 모두가 원만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깨달음을 증감할 수 없다”고 풀이했다. 절대 진리를 더함도 덜함도 없는 절대적인 허공에 비유하고 그 허공을 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93년 성철스님은 이런 입중계를 남기고 원적했다.

“일생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낸다. 산재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질래나 되는지라 동근 한 수레바퀴 뽀뽀를 내뱉으며 푸른산에 걸렸도다.”

“동근 한 수레바퀴”란 무엇일까. 감히 뭐라 설명하는 사람이 드문 이 계송의

지 없는, 절대적인 크기로서의 원이다. 중국 당대의 선승 남양혜충(南陽慧忠)이 손으로 원을 그려 보이며 깨달음의 자리를 표현한 이래 지금까지도 선사들은 법상에 올라 주장자로 크게 원을 그려 보이며 “이것이 무엇인가” 혹은 “네가 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묻는다.

불교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의미를 담고 원을 표현하고 있다. ‘성적이 원만하다’ ‘둥글둥글 살아라’ ‘원만히 해결됐다’ 등의 말을 많이 한다. 또 평가 일이 잘 되었을 때 말귀를 알아들었을 때 손가락으로 원을 그려 보이기도 한다.

원은 진리와 완성, 순환의 영원성, 조화와 관용, 우주적 합일과 풍요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양이 바로 원이란 것도 원이 갖는 이런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일원상(一圓相)

사찰의 벽화나 선화들에서 일원상을 흔히 볼 수 있다. 절대진리를 상징하는 원은 일원상으로 표현된다. 우주만유의 근본자리를 원이 표현되기도 하고 우주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圓 (2)



◇ 우주의 절대진리를 상징하는 일원상은 선화의 가장 보편적 소재로 쓰이기도 한다. 사진은 동원스님(서명암)의 작품.

圓과 관련된 불교용어

원각(圓覺):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
 원과(圓果): 열반을 뜻함. 원만행인(圓滿行因)으로 원만과덕(圓滿果德)을 중득했다는 의미.
 원광(圓光): 불보살의 몸에서 나는 광명.
 원광관음(圓光觀音): 33관음의 한 분. 등 뒤에 화염이 있다.
 원구(圓具): 구족계의 다른 이름. 구족계를 받은 사람은 열반의 원과(圓果)에 가까와 졌기 때문에 원구라 한다.
 원돈(圓頓): 모든 사물을 원만히 결함없이 갖추어 단번에 깨달음.
 원성실성(圓成實性): 원만 성취 진실을 구축한 것. 진여(眞如)와 같은 의미.
 원수(圓數): 10이라는 수를 뜻함.
 원승(圓乘): 원만한 교법. 중생을 싣고 불교(佛果)를 얻게 하는 것.
 원심(圓心): 완전히 원만한 열반을 구하는 마음.
 원통(圓通): 걸리고 편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며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서로 융합되므로 방해됨이 없음.
 원통(圓通): 널리 두루 통함으로 방해됨이 없는 것.
 원합(圓合): 모든 법을 원만히 융합시킨 것.
 원해(圓海): 여러 과상(果上)의 공덕이 곧대원만한 것을 큰 바다에 비유함.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원이삼점(圓伊三點)

사찰의 지붕 합각(合角) 벽의 동근 원 속에 작은 원 3개가 삼각형, 역삼각형 또는 약간 기울어진 삼각형 모양을 이루며 그려진 문양을 볼 수 있다. 이를 원이삼점 또는 이자삼점(伊字三點), 삼보(三寶)라 부른다. 3개의 원은 방어의 '이' 자가 세점의 역삼각형인 데서 비롯됐다. 방어의 '이'는 자재천왕의 눈이 생긴 모양을 본뜬 것이라 하여 자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남본열반경(南本涅槃經)> 권2 '대환품(大換品)'에서는 이 원이삼점을 통해 '열반의 내용인 법신 반야 해탈의 세가지 덕목이 서로 다르지 않게 상극(相卍)하고 있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원이삼점의 점들은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고 앞과 뒤를 따로 두지 않는 전체적인 용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우리는 불(佛) 법(法) 승(僧) 삼보에 비겨 삼보의 상징으로도 보는 것이다.

■ 공배(光背)

불화나 조각에서 부처님 혹은 보살

법륜이란 말은 일체의 법을 뜻하는데 8정도 혹은 8상(八相)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을 의미하는 여덟 축으로 된 바퀴모양을 흔히 볼 수 있다. 항상 구르는 법의 실상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찰은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주인공이다.

■ 염주(念珠)

염주는 글자 그대로 풀면 생각하는 구슬이란 뜻이 된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물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염주는 동근 구슬을 108개, 1080개, 3000개 꿰어서 만든다. 54개나 27개 혹은 그 이하의 수로 만들어진 짧은 염주도 있다. 이를 단주나 함장주라고도 부른다. 염주의 구슬 수는 108번이나 27번 등 법수와 같이 하여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 운주사 원형다층탑

부도를 제외한 대개의 탑은 4각이나 8각이 일반적이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원형으로 된 탑도 있어 불교에서 원이 상징하는 진리의 의미를 탑에 적용시킨 예로 여겨지고 있다. 전남 화

안과 밖 분별없는 우주적 합일 걸림없는 法 성품·깨달음 비유

마지막 부분이 원동태허는 아닐런지. 이승의 인연을 거두는 순간 선사의 여러한 법인(法眼)에 비친 ‘동근 한 수레바퀴’는 바로 절대진리의 당체일 것이기에 말이다.

이름 걸림 없이 자유로운 것(無碍自在)이아말로 불교가 추구하는 최상의 경지가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라 한다. 물론 우리가 그 위없는 깨달음의 자리를 추구하는데 불교 신행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승찬 스님이 두상(無上)의 깨달음을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다고 표현한 것이나 성철 스님이 ‘동근 한 수레바퀴’를 본 것도 위없는 깨달음에 대비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상(義相)조사도 저 유명한 <법성계>를 ‘법성원유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으로 시작했다. 법의 성품이란 원만한 것이어서 두가지 모습이 아니라는 깨달음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 것이다. 진리란 절대적이다. 한 모습, 한 맛, 한 색, 한 빛으로서의 진리아말로 진정한 진리일 뿐 분별되고 사립되는 것은 진리일 수 없다. 그 진리가 절대무한의 원(圓)으로 표현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물론 진리의 상징으로서의 원이란 둥글게 그려진 선의 안과 밖을 분별하

고 자체로도 표현된다. 우주에 원만히 품어진 진리를 하나의 원으로 상징하는 것이다. 또 불보살의 마음자리, 일체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성의 자리를 원으로 표현한다. 이는 나고 죽는 것, 오고 가는 것, 변화가 없이 여전한 것, 언어가 끊어진 곳과 언어의 분별이 사라진 경지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의미를 담는다.

선종에서는 특히 일원상을 진리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다. 선화(禪畫)에서 원은 가장 일반적인 소재다. 어쩌 보면 원상을 그리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냥 둥글게 선을 그려놓는다고 선화로서의 원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우주법계의 모든 번뇌를 녹여버린 무상각(無上覺)의 선지가 배어 있어야 한다.

곽암(12세기)스님은 십우도(十牛圖)의 여덟번째 ‘인우구망(人牛俱忘)’ 부분을 일원상으로 표현했다. 동자가 소를 찾아 집으로 돌아와 소와 자신의 존재를 초탈하는 대목을 커다란 하나의 원으로 그린 것. 모든 존재의 초탈은 곧 번뇌의 초탈이다. 공(空)의 체득인 것이다. 물론 공의 자리를 표현한 일원상의 동근 선은 의미가 없다. 선의 안과 밖이 모두 원이기 때문이다. 원 안의 세상과 밖의 세상을 구별하는 데서 우리의 번뇌가 시작된다는 점을

의 뒷면에 동근 빛이 발하는 장면이 묘사된 것을 볼 수 있다. 머리에 이런 표현이 된 것은 두광(頭光), 등 뒤에 표현된 것은 상광(身光)이라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공배는 두광과 상광을 통칭하는 것이다. 후광(後光) 또는 여광(脚光)이라고도 한다. 빛은 상당한 심상을 갖는다. 불보살의 몸체를 표현하는데 있어 공배의 문양을 사용하는 것도 불보살의 신상과 존귀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1세기에 시작된 간다리아미술에서부터 후광이 묘사되고 있다. 요즘의 불화에도 신광과 후광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 법륜(法輪)

법륜이란 말 그대로 법의 바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륜성왕(轉輪聖王)이 가지고 있는 윤보(輪寶)에 비유한 말이다.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자세를 ‘법의 바퀴를 굴린다(轉法輪)’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의미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 즉 법은 수레의 바퀴처럼 힘없이 구르다는 의미에서 법륜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이후 다섯 비구에게 첫 설법을 한 것을 ‘초전법륜’이라 하는 것도 같은 의미다.

원적(圓寂)

불교에서는 죽음을 글자로 보지 않는다. 연기실상의 한 부분일 뿐 영원한 소멸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을 열반이라고 이르는 것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오르던 번뇌가 끝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원적이란 모든 무지와 사견을 버리고 깨달은 것을 말한다. 원래적 고요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의 죽음을 이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는 것으로 표현하여 원적에 들었다고 말한다.

원연대 기자

자연을 연출하는 — 우리웃

연/지/곤/지

개량한복을 50% 할인가격(₩80,000)으로 판매합니다. 사업하실 분에게는 위 가격에서 충분한 마진을 드립니다.

★ 단체복(승복, 원아복, 사원복, 도복)을 최저가로 주문받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

본점 02)3461-8552-3 거점 507-7852
 명동점 (0343)88-7852 본당점 (0342)702-7373

연지곤지는 최고의 품질을 최하가로 보급합니다.

IMF를 이기는 불자님의 지혜 - 우리웃을 입읍시다.

(농민선원 건너편)